東大新聞
益昌 發行人
金東華 編輯人
宋李幹 主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②3130~9
本社直通 ②8498
每週日曜日發行

생동하는 지성의 대변지여…

紙齡400號

大學社會의 代辯者·파수꾼

대학은 한 나라의 자세와 방향의 정식적 支柱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서 그 존재이유가 선다。

사회의 엘리뜨이며 책임있는 유능한 시민을 양성하는곳、대학은 자유와정의를위해 필사적인 투쟁을 벌이고 또한 스스로의 內面을 키우며 성장의 기치를 드높히 올린다。

大學新聞은 그러한 대학사회의「代辯者」노릇을 함으로써 존재가치를 지닌다。그는 사회와 대학의 橋梁的所任을띄고 대변자가 되며、나아가 대학을 지키는「파수꾼」이된다。명예스럽지못한 御用紙가 아닌、학생들의손으로 만들어지는「학생의 代辯紙」이며「학생의 機關紙」이다。

대학신문은 이름그대로 대학의눈이며귀이고 知性인 것이다。여기서 대학의 눈 혹은 귀라는것은 빠르고 정확하게 대학가의 움직임을 알리고 그들의 주장을 당당히 開陳할을 뜻한다。

대학신문은 대학사회의 쇼윈도 木鐸이라고한다。평협적이 아닌 全대학인의 신문이라는 데서 公器이며 대학의 의견이 진실되고 正한것이라면 屈하지 아니하고 그 주장을 반영시켜야 한다는데에서 太鐸이라 일컫는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대학사회 공동체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自由스럽고 용감한新聞

그러나 우리의 대학신문은「학생의신문」으로서 얼마만큼이나 正道를곧게 걸어왔는가 또 걸어가고 있는가。기다리게 하는 신문、앞서는 신문이었는가。그렇지 못했다면「우리의 신문」인 이상 너나 할것없이 공동책임으로 물러야 한다。어쨌든 우리는 아카데미즘과저널리즘의 틀바구니에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우리의 구실을 다하지 못한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大學新聞史는 20년남짓한역사이다。짧은 그歷史속에 이만큼 風雪의 발전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도 놀라운일이다。

이는 자유를 위하여、정의를 위하여 슬기롭게 싸워온 학생기자들의 식지않는 정열과 비나가지 않는 良識이 있어 왔기때문이다。독자와함께 호흡해 오면서 不義와 不正에 快劍을휘두르며 캠퍼스의 여론을 조성하는 旗手가 되어왔고 미숙한 솜씨라도 참신한지면을 꾸며 學風造成에 알찬을 서은 때문이다。

처음엔 대학의위신을 떠럼힌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끝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큰도움을준것이었나를 알게된다。

言論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다

슬기롭게 싸워온 大學저널

言論이없는곳 어둠이있고 言論이 없는곳 밝음이 없다。

대학신문은、대학공동체가 각자의 본분을다하고 있는가、에 예리한 관성을 기울인다。그들이 삐뚤게걸고 더럽힐때 신문은 따거운매채를 준비한다。그렇기때문에 대학신문의 본질은 대학이 지향하는 높은 理想이 있다면 그에 同役割 노력을 하며「아카데미즘」의伸張에 主役이 되는것이다。

4百號를맞는 東大新聞

紙齡 400號!

나이400、연륜의하나하나가 모두 보람차고 소중하고나、값진 젊음과知性을 점철한 東大의 거울이여。

週刊紙로서 400호라면、그간의 年條를나타내는 것으로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니다。

정확히 말해서 東大新聞은 1949年「東國月報」라는 題號로탄생했고 뒤에 東國時報로、다시 東大時報로、그리고200호부터「東大新聞」이라고 改題를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아픈 고고를 울리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피땀이 열룩졌으며 열시당했는지 말하기조차 안쓰럽다。창간호부터 뻗쳐온 억압의 우둔한손길로 筆禍事件을 몇번이나 겪어야 했고 發刊내지配布中止의 곤욕은 얼마나심했던가。

그리고 아롬에 얼룩진면서도 그러한 악조건을이겨내려 정열과노력을쏟기 얼마인가。

三選의 언덕、진리의 門을 두드리는 東大人의 총기로운 學風을이룩하기에 한결같이 과감해야했으며 창조적정신풍토의 조성에 혼신을기울였다。

그리하여 오늘 東大新聞은 대학의 언론창달을통하여 젊은 氣風과 學風의 振作에 진력하기에 그공헌이 지대함을 自負한다。

東國月報에서 東大新聞으로 이어오면서 全大學人의 공기를 키우며 跳躍期가 되어온지 어언20년。그 연륜따라 우리는「아카데믹·저널」로서대학사회의「대변자」요 나아가「洞察者」임을 다짐한다。신문의 사명 다시금 다짐한다。

우리는 아카데믹하고 숭고한 미래의이념을 제시하는 所任을띄고 曲筆보다는直筆을、타협보다는 투쟁쪽으로 눈을 돌리고자 한다。

東大新聞은 東大의 맥박이다。빛나는 결실에의 「내일의 理念」을 제시하는 豫見者이고자한다。자유롭고 전진적인 東大新聞은 三選의 언덕에서 자유와 진리의 중인으로 서 있을 것이다。

紙齡 400호、

學內의 모든氣風振作의「파이어니어」로 燮燮한지 20년、이제「未知數의 내일」을 기약하는 年輪이다。이제 괭괭히 그 깃발을 폈다。신문에대한 決意 더욱 굳어진다。여기에佛光이 비칠것이다。

成年東大新聞、全大學人의 참여와 아낌으로 바람직한「第四府의 권위」를 갖는 신문이 되어야 한다。그리고 더 한계단 높은 차원으로 올라서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길잡이가 되고자한다。

「言論이 있는 곳에 어둠이 없다。」

글·朴泰遠 (編輯部長)

사진·金大欽 (寫眞記者)

紙齡四百號에 부치는 大學

馬鍾河

텅빈 백지에 强한 펜을 꽂듯
우리의 熱望을, 피 먼저
흔들렸다。
都市의 길을 위에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이것이 손이다, 이것이 목이다。」
이것이 다리이다, 라고
강하게 웨친다。
아침 식탁의 경쾌한
메뉴가 꼬딕으로 찍혀나오고
우리의 스푼은 여위고 단단하지만
빛나는 食器의,
그 活字를 알아차린다。」
「高層건물의 흔들리는
음영 속에서
위대한 塔의 치켜올린 손
그대의 빛의
견고한 結晶, 사랑을 안다。」
知性을 안다。
찌들린 感性의 부활을 믿는다。」
늘 밝은 大學의 언덕에서
믿는 것은 오직
늘 밝아 계신 그대의
새 印象일테지만
보아라, 第5部의 심장에서
끓는 언어를 잡추려 보는
우리 모두의 머릿칼은, 울울히
머릿칼은, 울울히
보이지 않는 반발와
돋지 못한 계곡의
돗의 물결소리를
들이고 늘여댄다。」
안경을 쓰면 더 밝은 친구의
노트가 그렇듯이
깨알의 개아미들은 깔깔히
대낮을 기어다닌다。
어깨로 부터 피어내리는
므거운 핏줄기들, 우리는
이 400號의
新聞 한장만으로
무엇을 알아낼 수 있겠는냐。」
이 新聞이 무어냐。
도대체 무어냐。
그러나 저 숲은 친구는
한창의 비인 종이만큼이나
가볍게 날아가기 일쑤인 것을。」
알 수 없는 이들은 므여들어서
별 없는 캄캄함을 토론하고
그윽한 안경테 그 너머로
고향의 찬 강물을
뇌까려 본다。
사투리 하나라도
빛갈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의 성긴 목소리가 되는 곳。」
친구야, 나는 오늘
저 마키아벨리즘의 「部를 실어한다。」
그게 어쨌단 말이냐, 친구야
눈물의 무게, 그만큼이나
영롱한 너를 위해서
저 女學生들은, 손거울에다
너의 전체를 비춰보인다。」
젊음이 한송이 연꽃으로
터져버린다고 해서
갈히 누가 가벼울 수 있겠느냐。」
안경을 쓰면 더 밝은 친구의
잉크빛이듯
대낮을 가는 푸른 젊음을,」
아, 팅빈 백지에
强한 펜을 꽂는다。

〈國文科4年·詩人〉

목차 特輯
一面=卷頭言、祝詞
二面=紀念辭、祝辭、東國詩壇①、現時點에서본大學의座標④、大學開話
三面=大學新聞(言論人共同硏究)
四·五面=學問의 本質과 變遷樣相
本社 同人座談會
六面=大學生의現實 (大學生座談)、東大新聞에바라는 학생들의 소리、東大新聞略史、本社同人動靜
七面=記事、오늘의문제
八面=지당할말을들(400호에 부치는 小說)、메아리

1960년 8월 스위스의「크로스터스」에서열린 제9차국제대학신문회의에서 채택된「國際大學新聞憲章」은「대학신문은 어떠한 통제에서도 자유스러워야한다」고 했다。즉 자유스럽고 용감한신문이 民主社會의 기본요소이며、대학신문은 이러할 때만 그 맡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현진책임자를 부당히 퀴쳘하고、配付中止를 시키고、학생기자를 配置하지 않았다。그래도 그들은 굽히지 않았다。曲筆하지 않았다。

만약 直筆과曲筆이 아닌 曲筆을 일삼았다면 학생들의 대학신문은 死滅했을것이며 또한 그것은 생명을 잃은 대학신문일 수밖에 없다。

젊음에 불타는 끓 愛校하는 길이다。大學과교수、그리고 학생을 꾜접어 보드랬을때 대학의위신을 더럽힐 것이다。

東大新聞 發展 祝賀 紙齡400号

總長 金東益
大學院長 金東華
教務課長 李昌培
行政大學院長 金東益
教務課長 李延植
佛教大學長 張元圭
文理科大學長 김재남
法政大學長 申基珍
經商大學長 金遠鍾
農林大學長 金熙坤
産業大學長 金昞熙
教養學部長 李箕永
教務處長 李昌培
教務課長 金鎬鎭
學籍課長 林돈
學生處長 李載昌
學生課長 李泰根
指導課長 李秉東
總務處長 趙昌華
總務課長 金榮又
經理課長 李光載
企劃調整室長 金仁鴻
企劃課長 金漢宗
圖書館長 李丙疇
司書課長 崔炳仁
閱覽課長 安益鉉
博物館長 黃壽永
科學館監 朴勝萬

社說

學生會의 役割

……紙齡 4百號에 부친다

東大新聞이 紙齡 4백호를 맞는다。4백호의 발행을 쌓아올린 東大新聞은 東大발전을 기록한 산 역사이며 또한 共同運命體이기도하다。

돌이켜 보건데、東大新聞의 創刊號는 20여년전인 1949년 봄 학생 스스로의 손에 의하여 다브로이트版 4면에 「東國月報」라는 題號를 붙쳐 등장하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國選과 민족의 死活問題가 百尺竿頭에 결쳐 있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綸旨하게 되었으니、당시의 學內外에 걸친 사명에 대해서는 제언을 필요로 하지 않거니와、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발전을위한 터전은이미 그때 다져졌다고 볼수있다。

「東國月報」의題號는 還都後에도 계속 되었으며、그후에는 학교당국의 支援에 힘입어 「東國時報」로 그題號를 바꾸어 旬刊으로 발행하는 長足의 발전을 하게 되었다。

오늘의 「東國新聞」은 旬刊으로부터 週刊으로 발행하게 되던서부터 따라서 「東國新聞」의 時期는 우리의 신분이 完全히 그 기틀을잡고 局을위한 東大발전을 거듭하는 5천전야에 있는 것이다。

그 기틀의 변화가 大學發展에대하여 肯定的인 것이냐를 따질 필요도 없이、東大發展을 위한 것이라면 그 질을 재건할 切實性을 평하여 反抗的이고 造成的이며 强烈하다고 한다。

그러한 東大의 기질은 곧 東大新聞의 氣質이 되었고、정신이 되었던 것이다。그러나 近年에 이르러 東大新聞의 어느 구석에서도 그 東大精神의 推進力은 찾아볼수 없게 되어 마음 금할길이 없다。

대체로부슨 일이든 꾸준히 계속한다는것이 그리 쉬운일은 아니다。週刊紙 〈東大新聞〉이 4백호를 마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경하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東大新聞〉은 東大학생만의 東大新聞이 아닌까닭이다。〈東大新聞〉이 아니었던들 宗立학원 東大학생 개개인에게 어찌 고루고루 佛敎의 써클실에서 불때 〈東大新聞〉이 4백호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 계속되어 나갈 것이냐 하는것은 확실히 말할만한 사람은 들어가게 될것인가、물론 속으로 발을 걸인가、그것을 알 수가 있었겠는가。이런면에서 수가 없으며、나아가서는 수가 있었겠는가。이런면에서 그 기틀을잡고 局을위한 東大발전을 거듭하는 5천전야에 있는 것이다。

재건을 위해서는 東大의 統率에서 공동의 광장으로 역할해 온 東大新聞이 그 주된 一役을 담당 드로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한 私學으로써 우리의 殿堂은 一大 試鍊期에 처하고있다。興行의 具備 등의 公式的이고 制度的인 合理化 등과 公式的이고 制度的인 측면에서의 공의의 광장이 맡아야 할 任務에 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非公式的인 通路를 통한 발전을 위한 樂觀的인 여부에서 言論機關의 重大한 사명을 인식하면서도 그 기능이 뚜렷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 根本的因을 따진다면 新聞社의 自律性과 獨自性의 缺如에 있다면、5백號에서 새로운 발행으로써 굳이 이 時點에서 强調할 問題일 것이다。

5백號가 刊行되는 그때에는 그러한 기우와 消極的인 면이 是正되고 보다 큰 發展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랄뿐이다。

〈東大新聞〉이 東大와 運命을 모 든 사람은 東大의 發展을 위하여 그리하여、그 기틀이 完全히 마련되고 社說의 내용때문에 大健兒들의 기질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되면 宗立學院의 최고학부이다。教界의 가장 높은 象牙塔이다。이 東國大學校의 등불 〈東大新聞〉이 어언4백호를 내게되었다니、같은 佛子의 한사람으로 자못 흐뭇한 마음 금할길이 없다。

대체로부슨 일이든 꾸준히 계속한다는것이 그리 쉬운일은 아니다。週刊紙 〈東大新聞〉이 4백호를 마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경하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東大新聞〉은 東大직원、東大학생만의 東大新聞이 아닌까닭이다。〈東大新聞〉이 아니었던들 宗立학원 東大학생 개개인에게 어찌 고루고루 佛敎의 써클실에서 불때 〈東大新聞〉이 4백호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 계속되어 나갈 것이냐 하는것은 확실히 말할만한 사람은 들어가게 될것인가、물론 속으로 발을 걸인가、그것을 알 수가 있었겠는가。이런면에서 수가 없으며、나아가서는 수가 있었겠는가。이런면에서 그 기틀을잡고 局을위한 東大발전을 거듭하는 5천전야에 있는 것이다。

재건을 위해서는 東大의 統率에서 공동의 광장으로 역할해 온 東大新聞이 그 주된 一役을 담당 드로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한 私學으로써 우리의 殿堂은 一大 試鍊期에 처하고있다。興行의 具備 등의 公式的이고 制度的인 合理化 등과 公式的이고 制度的인 측면에서의 공의의 광장이 맡아야 할 任務에 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非公式的인 通路를 통한 발전을 위한 樂觀的인 여부에서 言論機關의 重大한 사명을 인식하면서도 그 기능이 뚜렷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指摘한다。

그 根本的因을 따진다면 新聞社의 自律性과 獨自性의 缺如에 있고、그다음 次元으로는 언론과대학의 제도적인 결함에 있다고 말할수있다。

5백號가 刊行되는 그때에는 그러한 기우와 消極的인 면이 是正되고 보다 큰 發展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랄뿐이다。

즉 東大新聞은 東大5千健兒의 기질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되면

東大新聞

1955年10.13 第3種郵便物認可

(第400號)

大學新聞

그 現況과 反省

굴이 대학신문이아니 신문이 美國社會의 수많
더라도 美國신문과 학국은 地方新聞의구실을 충
신문은 비교가 안될만큼 되는 몇가지 유형으로장르
그體裁나 내용이다르다。 로도 해석될 수가 있었
잠간 겉핥기로 본 미국 다。
의 대학신문의인상을 말 한국에서 大學마다新聞
한다면、大學社會의 작고 을 갖게된것은 아마도6
큰뉴스—大學사회를 이루 코있는 학생이나 교수들
도 미처 모르는 뉴스가
엄청나게 소각되고있으며
大學當局과 大學新聞과의
관계도 때로는 편달의구실
을、때론 편달의 구실
을 거꾸로 하거나 공격을 하
아니라、善意의 仲裁구실
을 하고 있는것은 美國
대학신문의 중요한 일거
리의 하나라해도 무방할
듯하다。

또 大學社會의 영역을
大學신문의 영역으로알고
함께 울고 웃는 일들은 閉塞현에 공이있을 것이
따지고보면、美國의 대학 다。」

編輯

創意性있는 發展機關紙로
大學內的問題에 重點해야

大學外的인데主點을 둔 對外的인 P.R의 道具로 利用되는 大學新聞은 빨리 눈을 안으로 돌려야 할것이다。

모방하는 報道보다는 創意의 發展機關으로서의 大學新聞은 꼭 必要한것이다。 〈同門〉

25주가 아닌가 생각된다。

많은 學校가 新設 또는 擴張됨에 따른、自己P·R의 慾望도 大學新聞의 영역으로알고 있을것이다。

◇게시판의 複寫

「뉴스」의 빈약은 綜合大學보다 單科大學이당연히 더 두드러진다。

構內게시판에 나붙는공고나 日刊紙에 보도되었던것을 추려서 싣고도紙面을 다채우지 못해 窮餘之策을 쓴 경우가 적잖다。 대개 大學當者와의 「인터뷰」 같은 것등이다。

또 한가지 뉴스의 취급태도이다。 總·學長의 禮遇는 당연스러울지 모르나、그의 動靜이 곧 大學新聞의 톱이어야 한다는것은 생각할 문제들이다。

「뉴스」의 빈약은 大學新聞編輯者들이 너무도 商業紙의 解釋을 日刊

學問의本質과과거,현재,미래

學問의 相互關係

客觀的 事實의 探究

學問의 生命은 理念, 普遍的인 것 眞理—萬物의 본질, 永遠한 槪念

李 昌 培
文理大敎授
敎務處長

學問이 얼굴한 客觀性위에 성립하는점에서 그것은 主觀的인 感情이나 主觀的인 성질의 心理的 直觀的인것과 달리 普遍的 眞理를 探究하는 學問이 아무곳에서나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물론 이와같은 現代的 學問이 20세기 初葉에 이르러 비로소 발전되어 온것은 사실인데 그보다 오랜 6·7세기의 中國에서도 그와 유사한 硏究態度, 硏究方法이 없지는 않았지만결코 꾹같은 내용의 것이 될수는 없었다。西洋人들이 시작한 불교학에는 西洋人들만이 가지고있는 長點과 弱點이 있어서 그들 學問은 變遷한다。다시 말하면 眞理를 探究하는 데도와 방법은 항상 固定되어있지는 않다。그러나 그 變遷이란 반드시 時代的變遷을 일컫는 것으로 듣기쉬우나 그것만이 아니다。學問하는 태도와 方法에는 실제상硏究對象에 따라 각각 相異한 것이 사실이다。그러므로 學問하는태도와 方法이 항상 固定되어 있지않다는것은 반드시 時代的變遷의면에서만 주장되어질 性格의 것이 아니다。물론지금여기서 말하게 되어있는變遷이란 시대의 變遷에따른 社會의變遷, 그속의모든 現件의變遷에 隨伴한 變遷일 것은 두말할 여지없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들어가며 學問 그 자체에 관한 나지신의 생각을피력해보고자 한다。

가령 「佛敎學」하게 되면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되고있는 文獻學的 歷史學的 言語學的 佛敎연구를 말하게 되는데, 그러한 硏究는 形式의 佛敎學이 아무곳에서나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물론 이와같은 現代的佛敎學이 20세기 初葉「쉴뱅·레비」를 嚆矢로 발전되어 온것은 사실인데 그보다 오랜 6·7세기의 中國에서도 그와 유사한 硏究態度, 硏究方法이 없지는 않았지만결코 꾹같은것이다。그 단적인 이유를 들면 일본인들이 우리말을 모르고따라서 그들에게 漢字音의 높음과 現實의 낮음의 속에서 일어나는 撥折의 微妙한 차이를 이러한데에는 도저히 어느시대의 어느 역사적이해를 통하여 一貫된 硏究態度가 없게된 것이 현대에 있어서의 역사학의 변천상이다。

이러한 경향은 어느학문에나 다 적용될수 있는 현대적 특징이라고생각된다。특히 宗敎的인 분야같은 것이 죽은 史料만을 集成하고 나열하는 것으로 만족할수 있는분야는 아닌 것이다。

학실히 학문은 거듭해 오고있다。변천을 거듭해 오고있는 것이다。그것은 더복잡한 변천을 겪을 것이다。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인간의학문적 욕구는 인간에 관한총체적이해를 목적으로 집단적 협조적연구를 스스로 개척하는 방향으로달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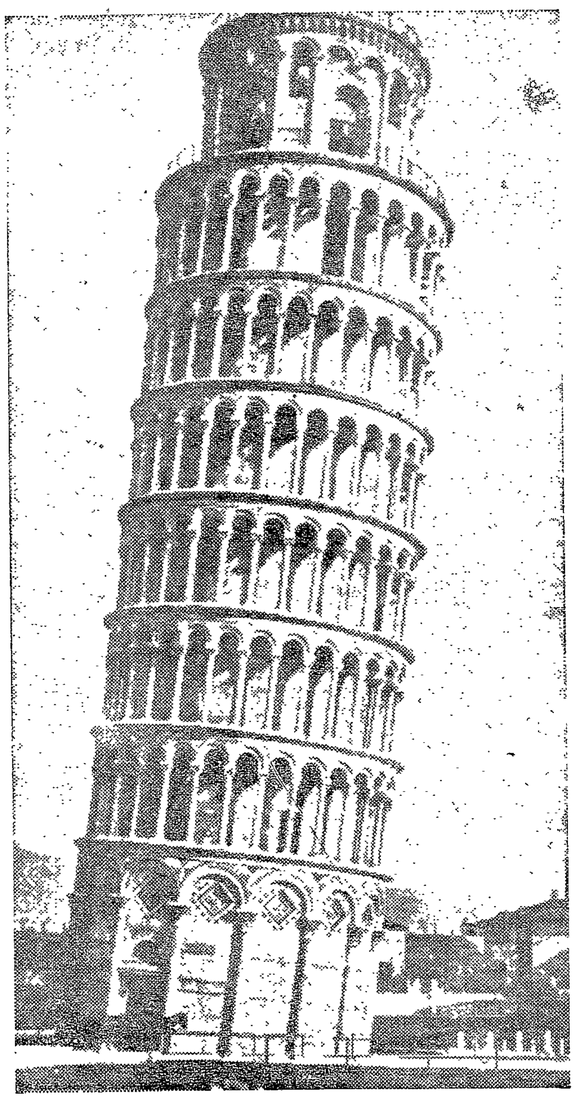
學問은 變遷한다。다시 말하면 眞理를 探究하는 데도와 방법은 항상 固定되어있지는 않다。그러나 그 變遷이란 반드시 時代的變遷을 일컫는 것으로 듣기쉬우나 그것만이 아니다。學問하는 태도와 方法에는 실제상硏究對象에 따라 각각 相異한 것이 사실이다。그러므로 學問하는태도와 方法이 항상 固定되어 있지않다는것은 반드시 時代的變遷의면에서만 주장되어질 性格의 것이 아니다。물론지금여기서 말하게 되어있는變遷이란 시대의 變遷에따른 社會의變遷, 그속의모든 現件의變遷에 隨伴한 變遷일 것은 두말할 여지없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들어가며 學問 그 자체에 관한 나지신의 생각을피력해보고자 한다。

가령 「佛敎學」하게 되면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되고있는 文獻學的 歷史學的 言語學的 佛敎연구를 말하게 되는데, 그러한 硏究는 形式의 佛敎學이 아무곳에서나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물론 이와같은 現代的佛敎學이 20세기 初葉「쉴뱅·레비」를 嚆矢로 발전되어 온것은 사실인데 그보다 오랜 6·7세기의 中國에서도 그와 유사한 硏究態度, 硏究方法이 없지는 않았지만결코 꾹같은것이다。그 단적인 이유를 들면 일본인들이 우리말을 모르고따라서 그들에게 漢字音의 높음과 現實의 낮음의 속에서 일어나는 撥折의 微妙한 차이를 이러한데에는 도저히 어느시대의 어느 역사적이해를 통하여 一貫된 硏究態度가 없게된 것이 현대에 있어서의 역사학의 변천상이다。

이러한 경향은 어느학문에나 다 적용될수 있는 현대적 특징이라고생각된다。특히 宗敎的인 분야같은 것이 죽은 史料만을 集成하고 나열하는 것으로 만족할수 있는분야는 아닌 것이다。

학실히 학문은 거듭해 오고있다。변천을 거듭해 오고있는 것이다。그것은 더복잡한 변천을 겪을 것이다。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인간의학문적 욕구는 인간에 관한총체적이해를 목적으로 집단적 협조적연구를 스스로 개척하는 방향으로달리고있다。



李 箕 永
佛敎大敎授
敎育學部長

態度、方法의 時代的 變遷

集團協助的 연구로 理解도모 唯我獨尊的 연구는 時代錯誤

金 永 秋
〈체신부 電務局 行政事務官〉

大學을 6년만에 졸업했고, 사회에 나온지 어느덧 5년째로접어 들었으니 십년이 넘는 옛일이 되고만 셈이다。나는 東國大學校에 입학하는 날부터 東大新聞 먹(?)을 좀 본셈이다。

首席入學所感이란 택먹지도 않은 雜文을 지금의 宋主幹의 指示(?)로 썼던것으로 기억이 된다。

입학하고 나서 오래지않아 見習記者試驗을 쳤는데 타고난 試驗꾼때문에 역시 首席을 해서 나는 학동안 어깨가 으쓱거릴정도였다。

지금은 없어진 木造 假校舍에 있던 編輯局에서 口述試驗을 끝내고 나는 農林大學과 科學館쪽 취재를 담당받았던 것같다。

그런데 학생기자로서는 대단한 활약을 했던것 같지는 않다。

기껏해야 京鄕新聞社에가서 교정을 보던 정도가 추억으로 남아 있으니 말이다。

그러다가 그만두고 나왔다。

뒤돈 過誤가 있었던것 같지는 않았는데 아마 대단한 활동을 못했던것 같아서 였는지 모르겠다。

『너는 공부해야할 사람이니 新聞社일은 공부에 尊念하는것이좋다。』는 恩師이자 당시 主幹이던 분의 충고를 굳게 信頓하고 나는 공부에 전념하려애썼다。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학교다닐때 공부좀 해둔게 참으로 要緊하고 을 못할것 같아서 그때 그만두고 나왔던것이 個人의 학자로서는 무엇보다 큰 損失이었다。

물론 당시 그 결정을 내릴때는 그만한 決斷과 용기가 필요했고 또 남이야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나는 꿋꿋이 내 길을 가야겠다는 굳은 意志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本紙紙齡400號기념特輯

學問의本質

現代的樣相

個人에서集團研究로

광범위한 發展에 따라 複雜·多樣化

人工頭腦로 實證·客觀的 解答찾아

金 鎔 貞
佛教大 講師

현대의 모든學問이 각각 고도로 分化發展하여 각개의 學問은 전문화된 각개의 學問으로 되는 것으로서 <이데아> 이데아> 들을 生成變化하는 것들의 總體로서 해석하였다。이것은 모든 지식의 근거를 <이데아>에서 찾아 在하고 <이데아>에 의하여 인식(에피스테메)의 대상

大學生들이 말하는 大學生의 學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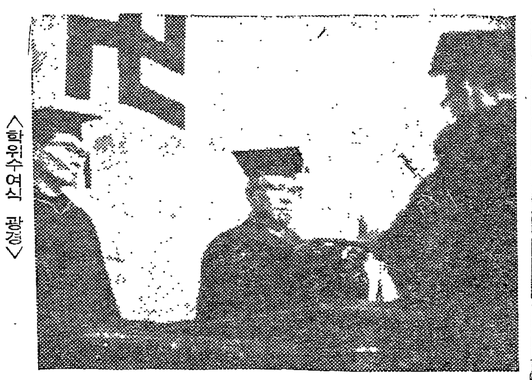
1967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대학생은 12만3천여명(비공식 推計는23만명)으로 전인구의 5·6%를차지하고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해방이후 17배의 양적팽대를 의미한다. 대학생 一. 어쩐지 사치한 느낌이든다. 주위로부터 기대를받기보다는 오히려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가고있는 듯한 느낌을 어쩔수없는것이 오늘날 대학생의 처지이다. 열등의식과 방향감각의 마비등으로 정신적 失鄕症에 병들어 있다고 흔히 말하고있다. 大學은「學士製造株式會社」가 아니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知的 지도자내지 책임있는 시민을양성하는 곳이다. 교육법에는 분명히 지도자로서의 인격을함양하고 헬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한것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이 그렇지못하다고 생각하게끔 돼버린데있다. 사회에서 지탄받기 일쑤인대학생, 빌음직스럽지 못한 대학생 一때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볼때 곤혹함을 어쩔수없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써 우리가 생각해보는 우리의현실을말해보고자한다.

主澤楊·記

大學生의 「三憫」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생의 「三憫」이라고 대표적인 것은 군대, 취직, 학비문제를 들수있다. 이 세가지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느부류에 속하게 될까』(朴英浩)、『앞날에 대해 영 자신을 없게 만들어 버리는 치명

追加卒業式盛了



〈학위수여식 광경〉

새學士 百17名 또 하나의 始作에 榮光을

그동안 갈고 닦은 4년간의 학업을 총결산하고 사회에 뛰는 제68학년도 追加卒業式이 14일 오전11시 金蓮燮총장과 二사장을 비롯하여 학처장, 교수및 내외귀빈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온누리에 퍼지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많은 졸업생가운데 싸여 시종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이날의 主役은 다름아닌 학생주는 다음과 같다.

▲佛敎大學=1명▲文理科大學=13명▲法政大學=30명▲經商大學=13명▲醫科大學=4명▲農業大學=4명▲林大學=20명▲師範大學=49명▲

부상당한 학생에 救護金 전달

지난 6월18일 「데모」에 참석한 中央硏究院 硏究員 50명이 파출을 가진바도 있다.

귀국후 연구정리에 분망한 李교수는 지난 12일 귀교하였다.

대만中央硏究院 歷史語言硏究所에서몽고어학을 연구한 李교수는 특히 몽고의 고대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민족과 한국문화의특」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18일 「쏘」에대한 수차의 교양강좌를 東國學院 附設 社會敎育院에서 개최하였다.

李龍範교수 歸國

中國史學硏究코저 東洋史를 연구하기 위해 서 정기총회를 갖고 사업계획수립및 학원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에정이다

標準梵語學 出刊

본교 鄭泰燁 강사

佛敎大學 鄭泰燁강사는 지난10일 『標準梵語學』을 發刊하여 宗團및 佛敎學會의 주목을 끌었다.

이번 鄭교수의 著述한 佛經의 原典을 공부하는데있어 많은 도움을 줄것이라 한다.

〈李龍範교수〉

食品工學 세미나르

大學食工學徒들—

68년도 제2차 대학식품 본교 柳時川 (食4) 군은 연구회 임시총회가 지난14일 「양송이의 일반적성질및가해 교내에서 모든운동을넘어 04강의실에서 시낙5개대학였다. 또한 首都師大학원도 「우유가공」에관한 효과적인방안에 대해 발표가있었다.

總會長 6名亂立

産大 二部大學 女學生會 單一立候補

學生會選擧、19日 投票

69년도의 총학생회장이 부대학의 金相敎(政3)군을 끝으로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한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産業大學의 李敏烈(食3)군, 女學生會 梁淑子(英3)양등이며 他大學은 一張元鎬(食·3)군 모두 2명의 경합을 보이고 있다.

한편 총학생회장은 6월3일 에등록한3명중 李運永(農3)군이 登錄을 안한반면 4명이 새로등록하여 예상을 불허하는 角逐戰을 벌이고있다.

이번 학생회선거 일부보수등에 대해 본부는 一般銀行收支原則에 따라 지난 4월1일에 단행된 제1단계 조치에서도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고 이번 조치에서도 그와같은 극히 小幅의 인상에 그쳤다.

그러나 과연 이와같은 이론의 援用이 우리의經濟情勢에 맞는가. 당장에 金利의 引下만이 全部는 아니다. 金利가 決코 一種의 特惠나 愉出擴張策이 될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것들을 止揚한 水準에서 再策定하여 政策的인 원바침 (輸出擴張策)이 따른 補助金政策등 이 있은後에 徐徐히 下向조정되어야 한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타난것은 本末을 顚倒한 것이다. 다만 문제는 그 時機만이 問題로 남았던 것이나 政府는 이제 단행된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貸出金利를 一般銀行과 같이 年25·2%로 내리는 案이 책정 결정되어 10월15일께부터 시행되리라는 것이다. 물론아니라 政府는 特殊銀行의 政策金利도 대폭 단순화하기 위한 원칙적인 방침을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같이 與受信金利가 다 같이 25·2%로 통일됨에 따라 金利改定은 預金에 대한 最高金利 (현行27·6%)는 2·4%가 떨어지는 셈이고 貸出金利 (현26%)는 0·8%가 떨어지게되는 것이다.

金融正常化 및 長期的 蓄性殘金의 吸收에 대한 意慾減退를 갖어온것은 물론이고 또하나 特記할 사실은 金利의 彈力性을 상실케 하였다.

金利調整은 요원한가

金 鍾 遠 〈經商大學學長〉

1965年 9月에 있었던 金利調整은 周知의 事實이지만 우리나라 金融의 痼疾的인 2重構造에서 오는 諸般弊害를 可能한限 이를 막고자 하는데서 우리나라의 현안인 現貨化政策의 一環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調整의 目的은 두엇보다도 金利가 資金에 대한 自動的調節作用을 발휘할수 있겠금 하는 金利의 元來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있었고 그 目的은 現貨化및 長期的 蓄性殘金의 吸收促進을 갖어온것은 물론이고 또하나 特記할 사실은 金利의 彈力性을 상실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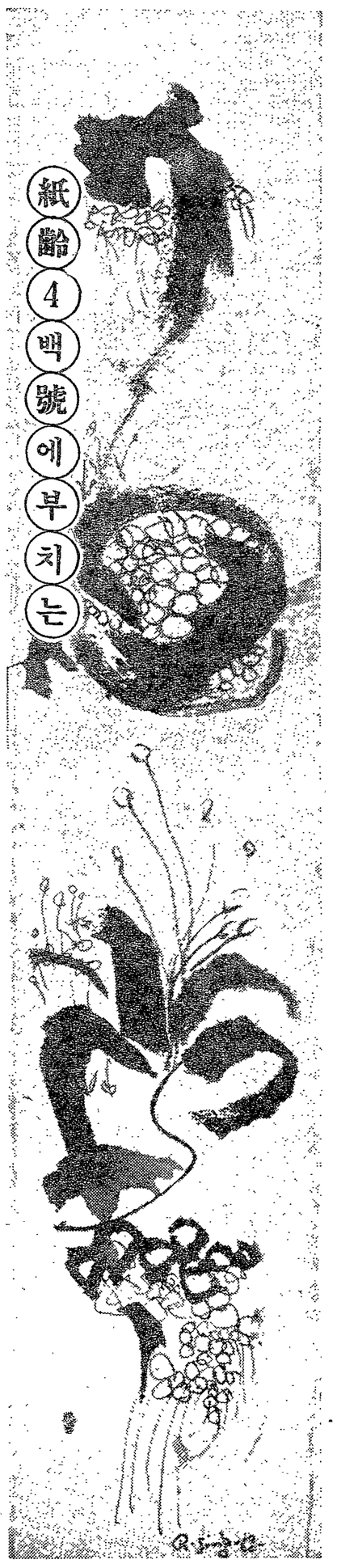
現行金利體系를 機能別로 再編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理論的이며 實證的으로 金利體系가 다시 區分해 보면 取扱하는 金融機關別 貸出金利中 一般金利와政策金利, 그리고 一般銀行金利와 特殊銀行金利와의 현저한 격차와 多樣性은 資金에對한 假需要의增大, 偏重融資등비롯한 特惠業地를 强化하는 結果를 초래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金利體系의 是正은 1단계의 조정으로 逆金利 (현26%)는 0·8%가 떨어지게되는 것이다.

3

現行金利體系를 機能別로 再編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理論的이며 實證的으로 金利體系가 다시 區分해 보면 取扱하는 金融機關別 貸出金利中 一般金利와政策金利, 그리고 一般銀行金利와 特殊銀行金利와의 현저한 격차와 多樣性은 資金에對한 假需要의增大, 偏重融資등비롯한 特惠業地를 强化하는 結果를 초래하였다고 보고 있다.

4



〈여기 東大新聞社입니다〉

신문배부도 어지간히 편집실에는 다。시야에는 백록가루같은 미립자가 춤을추고 공기의 누구는〈달빛에 지만, 아무리 깜빡 졸아버릴것같은 제자리에 알맞게 스크위에 멋대로 의 팬대, 재떨이, 대물이 신문철, 시계, 郷「바람」만이 연금모우기운동을 기자들은 장「착실」이는 에 아기자기한 코있던〈詩學入門〉인가 보고있다。「부나비」는 모양이다。(이「약소」는 다。)

달배연기가 여앉아서 어떻게 까니 하는 사못 해설을 고, 몇은 강추가 고있는데 …?제길 깔 읍니다」해줄려 었던 추억보다, 본 예쁜 여학생의 일학년때 학교을타리에 생한테 추억빨을 탁을 들겠다。

『빨리 전화해봐。김교수댁 부나비마져 영달아 셜화다。

『집에 계실까?』

『전화하라면 하는게야, 간에 찾아갔더라면 달배를 불이기 위해 으며「입수」가 거둘었다。

(깜박 잊어버렸다니까)

짜장 화가 난다。그때, 온「바람」이 기미를 층간해있다。그들은 를 추저하지 않는다。60년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동국대학교가 이래서야 되겠느냐。부패와 칠체의 참상을 차마 눈뜨고 좌시할수없어 나오게 되고, 동대 60년은 나의 정의갈을 부르고, 그래서 나는 동대총을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을바

『씨주신대?』

대답으로 알아듣고, 다시 물었다。

『아, 원고 청탁……?제길 깔빡 잊어버렸네』

『잊어먹어? 잘들 하는군, 내가 그럴줄 알았지, 그러니 누굴 믿고, 일하겠어, 정말』

짜증난 목소리, 할께 표정이 구겨진다。빌어먹을 원고청탁。세상에서 가장 재미없고, 맛대가리 없는것을 하나 골라보라면 영자와 청계천복을결 었던 추억보다, 기말시험의 마지막 시간에 술찍 먹던 여학생의 컨닝하는 몸짓보다, 국민학교 학교을타리에 오줌싸다 들켜 교장 선 생한테 추럭빨을 맞았던 기억보다 먼저 원고청탁을 들겠다。

『빨리 전화해봐。김교수댁 부나비마져 영달아 셜화다。

『집에 계실까?』

『전화하라면 하는게야, 퇴근하셨을텐데, 수업시간에 찾아갔더라면 수월했지。』

詩學入門을 데스크에 놓으며「입수」가 거둘었다。

(깜박 잊어버렸다니까)

짜장 화가 난다。그때, 모금운동을 벌이고 돌아온「바람」이 기미를 알아차리곤,

『뭘 그래 뭘, 뭘』

하고 수선을 피운다。집에 있을까, 없으면 집으로 찾아가는 도리밖에 더 있느냐 외부 전화가 있는 추간실로 간다。

다。네, 교수님 댁이시죠…? 여긴 동대신문사니다。네, 교수님 계실니까, 학교엔 안계신 모양인데요, 네, S대학에나가시는 날이라고요?…』

〈공부하는 학생〉 좋아하네

쿼랄까, 캠퍼스와 다방과 술집에서는 자치활동 회장단 후보자들의 야단스러운 제스추어가 별나게 눈에 띈다。이럴 뽄수록 그들은 웃기를 잘하고, 당돌하게도 입에서 마구 터져나오는 소리는 패기와 의욕이 충만해있다。그들은 지꺼리기를 추저하지 않는다。60년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동국대학교가 이래서야 되겠느냐。부패와 칠체의 참상을 차마 눈뜨고 좌시할수없어 나오게 되고, 동대 60년은 나의 정의갈을 부르고, 그래서 나는 동대총을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을바

퇴근하셨을텐데, 수업시간에 찾아갔더라면 수월했지。』

詩學入門을 데스크에 놓으며「입수」가 거둘었다。

(깜박 잊어버렸다니까)

짜장 화가 난다。그때, 모금운동을 벌이고 돌아온「바람」이 기미를 알아차리곤,

『뭘 그래 뭘, 뭘』

하고 수선을 피운다。집에 있을까, 없으면 집으로 찾아가는 도리밖에 더 있느냐 외부 전화가 있는 추간실로 간다。

다。네, 교수님 댁이시죠…? 여긴 동대신문사니다。네, 교수님 계실니까, 학교엔 안계신 모양인데요, 네, S대학에나가시는 날이라고요?…』

〈공부하는 학생〉 좋아하네

쿼랄까, 캠퍼스와 다방과 술집에서는 자치활동 회장단 후보자들의 야단스러운 제스추어가 별나게 눈에 띈다。이럴 뽄수록 그들은 웃기를 잘하고, 당돌하게도 입에서 마구 터져나오는 소리는 패기와 의욕이 충만해있다。그들은 지꺼리기를 추저하지 않는다。60년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동국대학교가 이래서야 되겠느냐。부패와 칠체의 참상을 차마 눈뜨고 좌시할수없어 나오게 되고, 동대 60년은 나의 정의갈을 부르고, 그래서 나는 동대총을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을바

『이, 거, 안 되겠는데…』

『뭘 남의 공장을 빌어 쓰는처지에 (입수와 바람 희주이 옷으며 얼편 원고를가지고 들어온다。)

『모두 수고가 많아, 관은 다짜고?아이구 아저씨 수고가 많습니다。』

『잘 놀으십니다…?』

『예, 일이 그렇게 돼서!』

『원고 다됐우?뭘 더 쓰시지!』

『아닙니다。사람도 가끔체면을차릴줄알아지!』

『빨리 론선에 넣기슈』

『아이구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벌써 왔어? 오늘은 별게 빠르군。』

『이, 거, 안 되겠는데…』

『뭘 남의 공장을 빌어 쓰는처지에 (입수와 바람 희주이 옷으며 얼편 원고를가지고 들어온다。)

『모두 수고가 많아, 관은 다짜고?아이구 아저씨 수고가 많습니다。』

『잘 놀으십니다…?』

『예, 일이 그렇게 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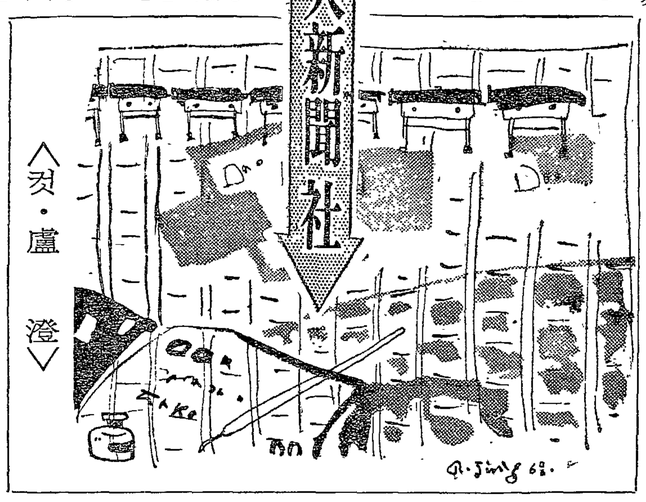
『원고 다됐우?뭘 더 쓰시지!』

『아닙니다。사람도 가끔체면을차릴줄알아지!』

『빨리 론선에 넣기슈』

『아이구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벌써 왔어? 오늘은 별게 빠르군。』



小說 東大新聞社

모씨의 분노

(늦게 들어선 B주간)

『이, 삼, 사면은 다 됐오?』

『다 됐습니다』

『어휴 여긴 왜 이렇게 칙칙해, 이거 안 되겠는데』

『정말 미칙겠는데』『도리없지』『뭐가요?』

『남의 공장을 빌어쓰는 처지에』

『이 놈의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불력이 났어。다리가 녹신녹신해요, 이젠』

『참 너 아까 아가씨한테서 전화왔더라』

『무슨…』

『거 있잖아, 안경도 끼고, 여보세요, 이 장주세요? 하는……』

『동판 말씀이다』

『글 그리 쳐다보고 있는 거요, 뭐 쳐다만보면 그 속에서 갈비탕이 나오나 골탕이 나오나 나오는 거야, 이양반들이 우릴 야근시킬 속셈인가…』

『네 글 오케이 납니다。B선생님 오케이 내주십시오』

『잘 읽어봤오?』『네』

『이게 다 읽어본 건가? 이 사람이』

(그 놈의 글자가 거기 숨어가지고 재주를넘고 있구나)

『이건 또 뭐야 가만있자…』

誤字는 고양이 눈깔처럼

강주가 신문사에 도착한 것은 열두시 가까워질 무렵이었다。아홉시 조금 넘어 공장에 도착했고 신문을 싣고 신문사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줄곧 공장에서 시간을 보냈다。동판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형을 뜨고, 윤전기의 철거덕거림에 따라 쏟아져나오는 신문을, 감히 속적인 지겨울등은 충족감의 배깔넘새같은 엉크냄새에 상쾌해져버린 것이다。그러나 고양이 눈깔을 하고 지않게도 오자(誤字)가 시야로 튀어들어올 때도있다。이때의 강주는 슬가쁜 윤전기의 철거덕을 따라 가슴의 철거덕거림과 할께 눈알이 찡해진다。

강주는 차에서 내려 익숙하게 현관으로 들어섰다。자재지인 영자신문「동국포스트」편집실에서 들려오는 타이프·라이터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온다。포스트편집실 모퉁이를 지나면 식당—이 식당에서는 언제나〈샘표간장〉냄새가난다。소뼈귀다 우리는 냄새가 결들어 나는데, 이것은 슬기를잔

東大新聞社學術賞

大學의 學究的기틀을 더욱 堅固히하고 學生들의創作의 욕을 북돋기위하여 本社學術賞을 제정한 本社學術賞은 一년에 두번씩 第6回가 되었읍니다。금년에도 다음과같은 요령으로 在學生 여러분의 作品을 募集하오니 많은응모가 있기를 바랍니다。」

記

一、學術賞의 種類
一、人文社會科學賞 二、自然科學賞 三創作文學賞

二、應募要領
①人文社會科學및 自然科學分野는 所屬學科의 學術에關한 研究論文이어야하며 원고에 主任교수의 추천印을 받아야 한다。
但 원고枚數는 2백字원고지 60枚內外로함
②創作文學分野는 詩5편이상, 小說60매이내로함。」

三、應募資格 本校生에 限함
四、審査委員 本社에서 위촉한다。
五、施賞 名部門別 賞狀및 賞金 1萬원씩
六、作品提出期限 10月10日부터 30日까지
七、作品提出處 本社 總務部
八、審査結果發表 11月中 本紙上
其他 자세한것은 本社總務部에 問議할것。」

西紀 1968年 8月

東大新聞社

第6回 作品募集

接受는 10月10~30日까지

人文社會·自然科學·創作文學

楊澤圭 〈國文科 3年〉

社告

대아극장

○…社會 만큼한 위치에서 너욱 높은 次元의 理想으로 있어서 新聞의 힘이 전진하고 있는 것이아닌가。

○…東大新聞 紙齡 400號。참으로 피땀으로 이룩된 한국大學新聞史의 표본이다。순탄치 못한 역경을 밟으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게 「第四府」的인 言論機關을 통하여 內의 氣風振作과 창조권위적 요인을지닌다。 적종로의 造成에 혼신 그러나 대한신문은이 을 기울여온지 20年。 時點에서 볼때 한국의 言論이 지니고있는 일 이를 계기로 더욱더 반적인「카테고리」 대학신문학생들의 속에서 서 의견을 진약시 크게 벗어나지 못 키는 「代辯者」 하고있을뿐 아니라 로서 대학을 지 대학신문이라는핸디 키는「파수꾼」으 캡은 어절수없 로서나아가 갔진 는 것이다。 미래를 여는「歷 ○…『있어옷사 史의 豫見者」로 실』을 추궁하는 서의 사명을 다 記事로 그쳐만 해야한다。

○…그리고 권 리를 내세우기전 넬리춤에 빠지기 에, 大學社會의 公器 전에 대학신문자체의 운 가 아닌 對外 PR기 명을 지키는데에도 게 관지로 隨落해버린 것 을 염려해선 안된다。 은 슬걸수 없는 사실 즉 편견이 없고 보 이다。 도에 정확을 기하며 뉴 그래도 솔한 여전과 스의 정확한 수집및 발 부당한 당국의 압력으로 표를 통하여, 또한 공 인해 『제길』을 잃 정한 비평과 비판의권 기도 했으나, 학생들을 리를 통하여 자유를 옹 위하고 바람직한 大學 호해야 한다。 으로이끌기 위하여 또한 어떠한 외부로 생기자들은 부단히 싸 부터의 압력이나 영향 워왔다。大學新聞史 20 으로부터 대학신문의독 년은 결국 피나는 노 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력으로 점철된 역사였 진력해야 할 것이다。 던것。그래서 오늘 이 〈P〉

大學新聞

時事英語研究

進修堂新刊案內

마아케팅概論 〈값730원〉
—商業經營論—
東國大教授 윌리암J·슬쯔著
許衛譯

內外 商業政策概論 〈값850원〉
—配給政策과 貿易政策—
東國大教授 許衛著

事務管理 〈값490원〉
行政大學院教授 朴璿鎬著

貿易의 決濟와 金融 〈값500원〉
薛洪烈著

外國換管理規定 〈값370원〉
進修堂編

普及處 進修堂
서울中區乙支路三街三四二
電話 (22)2552, (23)3578, (22)3204
販賣處 東大構內書店
電話 ㉘6407

信興印刷公社製作